

一、寺蹟元寫本(註六)

檀紀四二八九年 八月二十八日

一冊

立證

朴源應「金海雲」崔永大「金惠江」朴性悟「金漢基」崔道錫「派遣所主任 崔占淑」鄭鍾一「工兵

軍人 許判烈」執筆 金炯嶠 以上

其一 留於本寺

其二 留於法孫

註一、「智異山華嚴寺案內記」貴重品目錄에 의하면 이目錄以外에 (一)磁

器(花瓶)一座 李朝白磁器 (二)華嚴經石刻約一、五〇〇餘片 丈六

殿遺物 (三)靑蓋瓦二枚라 하였는데 花瓶石刻은 現存하나 靑蓋瓦

는 찾을 수 없었다. 또 同寺에 傳來하던 高麗金字寫經「妙法蓮花

經卷第四」一冊은 現在 行方을 알 수 없다. 筆者는 六・二五直前

此品을 同寺에서 본 바있으므로 그 以後의 일인가 한다(關野貞「朝

鮮藝術之研究續篇」明治四三年)에 石經와 더불어 이 寫經卷

四 一冊을 들어 要監督保護라 하였다)

二、이 木槓은 內部에 硝子窓(一部破損)이 끼어있어 物品의 出入이 不

可能한데 이 點은 保存 및 調査를 위하여 再考되어야 한다.

三、이 調査는 文化財專門委員 崔容完氏와 같이 寺刹當局의 協力으로 이루어졌다.

四、이 教旨는 仁祖四年(一六二二)에 該當됨으로 宜祖가 아니라 仁

祖로 보아야겠다.

五、이 上樑文은 考古美術資料集 第六輯「韓國木造建物上樑記文」에 收

錄되었다.

六、이 寺蹟寫本은 考古美術資料集 第七輯「佛國寺、華嚴寺事蹟」에 對

照引用되었다.

(附記)이 木槓內에는 現在 註一에서 들은 李朝靑華松竹文大壺(寫眞)

(高四十九cm 弘治路이 있을)가 들어 있는바 이것은 오랫동안 覺皇

殿에 傳來하던 것으로 昨年 盜難당하였다가 다시 서울에서 回收된

것이라 한다. 年代도 確實한 優品으로서 保存에 특별한 配慮가 있

어야 할 것이다. 또 華嚴石經片 合計五箇가 이 槓內 또는 本尊 앞經

床위에 保存되어 있다.

第六卷 第九號

通卷六十二號

華嚴石經 調查整理 畧報

鄭 明 鎬
申 榮 勳

華嚴寺補修工事의 一環으로 覺皇殿의 華嚴石經을 一九六一年九月八日 부터 十月六일까지 二十九日間 調查整理하였다.

覺皇殿 石燈 補修工事 黃壽永監督官 指揮下에 東國大學校 禹貞相教授와 文化財保存委員會 秦弘燮幹事의 協助를 얻어 調査員 鄭明鎬와 申榮勳이 擔當하였는바 이때 覺皇殿 醜瓦工事監督官 林泉氏와 長韓建設社長 鄭復永氏의 커다란 協력이 있었다.

一、整理目的

日帝末 覺皇殿 解體修理의 一環으로 樞本社人氏가 中心이 되어 石經을 整理한바 있었다. 其後 分類包裝되었던 石經片이 六・二五動亂 前後의 被害로 箱子가 破損되고 現品이 露出堆積되어 그中 一部가 逸散되어가는 일도 생겨 더이상 放置하여둘 수 없는 狀態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再整理 包裝하여 장차 완전히 조사 정리될날까지 安全保存方策을 講究하기로 하였다.

二、整理前의 狀態

覺皇殿 佛壁 뒷쪽 公터에 佛壁 쪽으로 나무 시령을 여섯개 깔고 그곳에 石片을 포장한 箱子를 쌓았다. 시령을 보고 서서 오른편부터 第一號라 고 한다면 第六號까지가 現存하고 있는 것이나 第二・六號를 除外한 네 개의 시령에는 刻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箱子를 두가지로 나누어 만들고 그에 따라 番號도 따로 썼는데 그 하나는 番號앞에 「大」字를 썼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표시없이 一連番號만을 記入하였다.

箱子는 번호에 따라 차례로 쌓였었음을 데지만 지금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허다한 石片이 露出되어 어느 硯에서 무엇이 열
 막막름 나왔는지 짐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一連番號는 硯의 오른쪽 위머리에 아래로 내려 썼고 왼편에는 包裝
 數量을 表記하였는데 글씨는 「오일·펜실」로 썼다. 몇몇 箱子에는
 「3」字가 쓰여져 있으나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가 없다.

두가지로 나뉜 箱子의 수와 없어진 箱子의 數는 다음과 같다.
 가, 「大」字表記分

第一號 二十六硯 「3」表示 한硯

第二號 四十八硯

第三號 露出

第四號 八硯

나, 一連番號分

第五號 二十九硯

第六號 四十一硯

合計 一五二硯

다, 없어진 箱子(數字는 番號임)

「大」字表記分

五、六、九、十七、十八、十九、二十二、二十三、二十四、二十五

七十、七十七、八十一、八十二、九十四、九十七(註·九十八號以

上은 存在與否未詳)

合計 十六硯

나, 一連番號分

二十八、二十九、七十一(七十三以上은 存在與否未詳)

合計 三硯

總計 十九硯

이로서 보면 이 빠진 수가 十九箱子나 된다. 「大」字表示分이나 「一連
 番號分」도 現存하는 最端數以上이 未詳하니까 十九箱子 以外에 얼마나
 없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三、整理方針

1, 日人의 整理한 原則을 알 수 없고 또 안다고 하여도 지금의 형편
 으로는 어쩔수 없으니 새로운 方針을 정하고 그에 따라 整理한다.
 나, 箱子를 모두 뜯어 表記된 數와의 變動與否를 확인하고 다시 넣을
 때에는 새로히 分類한것에 따른다.

다, 分類하는 要領은 다음과 같이 한다. 破片의 大小를 莫論하고 現
 存하는 字數를 基準으로 하여 一—一〇字까지는 「小」로 一〇—一五
 字까지는 「中」으로 五〇字以上은 「大」로 하되 九字半이라도 一〇字
 로 計算하며 文樣과 無文字 參考品은 「其他」로 한다.

리, 이처럼 分類된 石片은 그전과 같은 箱子에 넣고 모자라는 硯은
 큰것을 본따서 똑같이 만든다. 箱子에 石片을 넣은 후에 別添한 樣
 式으로 印刷된 카—드를 한 硯씩에 한장씩 넣는다. 이와 똑같은
 카—드는 原本과 副本은 寺內에 備置토록 한다.

미, 카—드의 양식에 따라 石片의 大中小其他를 記入하고 그 合計된
 數를 表記함과 더불어 拓本與否도 記錄한다.

箱子에 넣은 카—드樣式 (第161號箱子)

華嚴寺石經調查表

番 號	161 號
大	4 個
中	12 個
小	4 個
其 他	12 個
計	32 個
拓 本	5 個 大文樣 5 個 小文樣

※ (大)……約 50字以上
 (中)……約 10字以上 50字以下
 (小)……約 10字以下
 (其他)……文樣 또는 無字

나, 文樣破片과 參考品은 따로 分類하되 重要한 것은 되도록 全部 拓
 本한다. 한 硯씩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것을 하나씩 拓本한다.
 다, 整理된 箱子에는 새로이 一連番號를 墨으로서 쓴다. 包裝이 完了
 된 硯에는 封印을 찍는다.
 오, 包裝된 箱子들은 佛壇아래에 두개로 넣되 아무나 確認할 수 있

華嚴經石收納表(箱子別)

1961年9月

箱子番號	大	中	小	其他	小計	箱子番號	大	中	小	其他	小計	箱子番號	大	中	小	其他	小計	箱子番號	大	中	小	其他	小計																			
1	7	4	2		13	36	29	19	3	51	71	30	5	4	39	106	30	200	2	232	141																					
2	20	20			40	37	35	4		140	72	141	24		66	107	54	29	3	86	142																					
3	426	1			31	38	36	6		42	73	29	15		44	108	49	60		109	143																					
4	421	1			28	39	38	11		150	74	129	20		50	109	36	77		113	144																					
5	26	16			44	40	23	5		38	75	33	17		50	110	36	55		91	145	9																				
6	221	12			38	41	32	7		34	76	44	16		60	111	42	27		69	146	1																				
7	25	19			44	42	41	23		64	77	29	16		45	112	46	75		121	147																					
8	317	6			26	43	26	18		44	78	34	26		60	113	27	61		88	148																					
9	319	6			28	44	32	32		64	79	132	12		45	114	47	4		51	149	5																				
10	18	19			38	45	31	6		426	80	37	3		40	115	35	125	1	161	150																					
11	45				45	46	38	53		91	81	223	17		42	116	87	37		124	151																					
12	35	2			37	47	20	19		42	82	38	35		73	117	45	45		90	152																					
13	18				30	48	20	41		61	83	28	21		49	118	31	282	7	320	153																					
14	20	2			25	49	38	38		76	84	39	11		50	119	33	100		133	154																					
15	6	33			41	50	41	25		40	85	11	15		43	120	26	56		82	155																					
16	11	54			65	51	30	38		68	86	228	13		43	121	47	107		154	156																					
17	38				38	52	126	42		69	87	123	16		40	122	53	81		134	157																					
18	45				45	53	27	43		70	88	146	14		61	123	46	167		213	158	2																				
19	35				35	54	6	23		35	89	320	17		40	124	44	68		112	159																					
20	31	26			57	55	3	34		47	90	71	14		35	125	33	156		189	160	12																				
21	43	11			54	56	1	27		42	91	27	3		30	126	45	72		117	161	4																				
22	38	21			59	57	18	10		58	92	32	18		50	127	65	98	1	164	162	3																				
23	625	36			67	58	5	19		24	93	28	103		131	128	1	131		13	163																					
24	3	8			42	59	4	24		39	94	40	34		74	129	48	13	2	65																						
25		80			80	60	4	0		52	95	34	119		153	130	46	34		80																						
26	433	6			43	61	1	30		41	96	56	43		99	131	62	65	3	130																						
27	28	70			98	62	3	30		30	97	29	141		170	132	126	233		260																						
28	242				242	63	43	8		51	98	38	178		216	133	34	32		66																						
29	42	26			68	64	32	3		237	99	54	88		142	134	46	35	1	82																						
30	344	3			50	65	32	6		38	100	31	169		200	135	43	87		130																						
31	47	8			57	66	28	7		35	101	44	64		108	136	44	68		112																						
32	17	64			81	67	138	24		63	102	57	32		89	137	2	36		94																						
33	417	35			57	68	126	8		136	103	48	68		116	138	35	31		66																						
34	28	48			76	69	35	10		45	104	41	85		126	139	46	97		143																						
35	517	24			48	70	40	23		63	105	24	143		167	140	3	41		45																						
																						總計	大	中	小	其他	總計															
																						163	176	5,240	8,647	143	14,242															

第六卷 第九號 通卷六十二號

도록 前後에 通路를 둔다.
 스, 石片中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내게 따로 두었다가 寺衆에 引渡하여 寶物櫥에 陳列하도록 한다.
 四、整理經緯
 하루 五箱子씩 다루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人夫 三十二人的 힘을 얻어 작업을 하였다.
 먼저 제작을 뜯으면 질을 꺼내고 破片을 하나씩 꺼내어 字數를 셈하여 大, 中, 小, 其他로 나누어 別置하고 중요하다고 認定되는 破片은 拓本한다. 分類된 破片은 차례로 넣어지고 한 캐마대에 질이 깔린다. 맨 위 질까지 덮고 分類된 破片의 數가 集計되면 카이드에 써서 一枚는 넣고 나머지는 別途로 保管한다. 못질 이 끝나면 上面과 側面(目人들이 記入한 反對側)에 제작의 番號를 墨書한다.
 일에 손을 대기전에 露出 흙이 있던 破片들은 主로 小片이어서 大片的 殘片에 들어가고 大片과 文樣·參考品들은 대부분 한 곳에 모여지도록 하였다. 이렇듯 整理된 제작이 百六十三상자인바 그 分類包裝된 內容은 別表一覽表와 같다.
 五、調査事項
 萬數千點에 가까운 大小 破片을 다루면서 우선 눈에 뜨인 점은 石質이 한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灰褐色, 帶紅色, 暗灰色의 色調를 가진 세가지 돌이 混在하는데 懸壁時 石片의 全貌를 알 수 없어 그것들을 어떻게 分類하여 使用하였는지는 明確하지 않지만 그것을 무늬 농도 아무렇게나 배치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것은 字勢와 筆致의 差에서 보아도 짐작이 간다.
 建物이 燒燼될 때 石材도 焚燒變色되었을 可能性이 있고 位置에 따라 變色된 色調의 差異가 있었으리라 짐

작되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세가지 色狀을 띤 石材로 나타나게 되었는데는 분명하지 않다.

또 한가지 注目된 것은 文樣을 浮彫한 石材와 그리 많은 數는 아니지만 거처는 彫法으로 刻字한 石材와는 아주 다른 것 같이 보인다. 점이다.

이로서 보면 強調되어야 할 部分과 餘他部 部分과의 區別이 있어 注力되어야 할 部分에는 石材나 筆生이나 刻匠이나 最善의 것을 動員하고 餘他部分에는 次善의 것을 움직인 듯한 印象을 받게 된다.

石經의 內容은 華嚴經의 經文을 全部 收錄한 것인데 禹貞相教授는 破片의 一部에서 海印寺藏八萬大藏經中 華嚴經板의 文句와 同一한 것을 여러가지 가려내었다.

文樣은 浮彫한 것과 線刻인 것의 두가지 종류의 破片을 볼 수 있었는데 浮彫한 것은 破片이 너무 적고 線刻인 것은 아주 호러 繪畫된 內容이 무엇인지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였지만 추정컨대 寫經卷頭變相圖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은 佛界에 대한 描寫 그것과 흡사한 듯이 느꼈다.

石經製造當時에도 臣大한 石材를 使用하여 刻字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고 지금 破片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마치 方塘과 같은 모양의 薄石을 수 없이 이어서 하나를 완성하였던 듯하다.

石片을 서로 연결시키는 方法도 여러가지 었는지 이번 調査에서는 마구리 가운데 아래부분 文樣材 등 그 位置에 따라 이음방법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바가지 方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바가지 方法에서 共通點을 찾자면 位置에 따라 각기 홈을 파서 隱具를 끼우게 된點인데 不幸히 隱具에 대한 知見은 얻지 못하였다.

石經石中 鍍金된 部分이 있었다 하나 이번 調査에서는 發見하지 못하였다.

覺皇殿前石燈工事概要

申 榮 勳

華嚴寺 補修工事의 一環으로 覺皇殿前의 石燈을 重修하였다. 今番 補修工事의 內譯은 石燈을 重修하는 外에 林泉監督官으로 覺皇殿과 圓通殿의 지붕을 飜瓦하였다.

石燈工事는 一九六一年 九月 七日부터 着工되었는데 그 解體는 九月 十日에야 착수되었다.

相輪部의 部分石, 蓋石, 一枚, 四裂된 火舍石이 하나로 네쪽난 中台石도 죄여서 한돌처럼 竿石 下台石이 한돌씩 차례로 나려지고 埋沒된 地台石을 露出시키므로써 解體는 끝이 났다. 基礎는 地下로 約三尺 하고 雜石을 채운 후에 콘크리트 하였다.

地台石은 돌 빔으로 짠여진다. 南北에 커다란 돌을 놓고 東西에 작은 돌을 짤아 막음질하였다. 그중 北쪽의 돌은 다른 세 돌과 좀 다른 점이

